

사랑 반 눈물 반

1) 사랑 반 눈물 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 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옛 사랑을
뺏속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안고
애원한들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베베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 반 눈물 반

2) 사랑 반 눈물 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 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옛 사랑을
뺏속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안고
애원한들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베베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 반 눈물 반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베베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 반 눈물 반
사랑 반 눈물 반

정녕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엔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사랑새(Feat.엄지)

(옛날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같이 하트 발사~)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마음 알고 있겠지
(어떤 마음~)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의 씨앗을
그대에게 전해주겠니
(물론이지~)
가다가 보면 구름도 많고
높은 산도 많겠지만
(아~ 힘들어)

내 마음 꼭 안고
내 모습 꼭 안고
그대에게 전해줄래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사랑 신고 날아라
(윙크 발사~)

그 님을 만나게 되면 잊지 말고
소리 내어 울어다오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마음 알고 있겠지
(그럼 알지~)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의 씨앗을
그대에게 전해주겠니
(전해줄게~)

가다가 보면 비바람 불고
눈보라도 치겠지만
(어? 저기 보인다)

내 마음 꼭 안고
내 모습 꼭 안고

그대에게 전해줄래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사랑 신고 날아라
(하트 발사~)

그 님을 만나게 되면 잊지 말고
소리 내어 울어다오
사랑새야 사랑새야
(안녕~)

아담과 이브처럼

난 그냥 니가 웬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 가봐
가슴이 저러오네요
그리움이 이런 건 가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 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니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 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니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se say you'll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불나방

나를 사랑한 건 맞나요
진정 나만 사랑했나요

거짓으로 안아주고
거짓말로 입맞추던
그 순간만 사랑했나요

불꽃 속으로 뛰어들던
한 떨기 외로움은 음
이별마저 부여잡고
마지막 불씨가 되어

태우고 다시 태운 사랑
불나방 사랑

나는 당신 사랑했어요
진정 당신 사랑했어요

거짓으로 안아주고
거짓말로 입맞추던
그 순간도 사랑했어요

불꽃 속으로 뛰어들던
한 떨기 외로움은 음
이별마저 부여잡고
마지막 불씨가 되어

태우고 다시 태운 사랑
불나방 사랑
태우고 다시 태운 사랑
불나방 사랑

인생이야기

나의 인생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네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가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

아~ 힘들면 언제
나무 그늘 아래서
술 한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아~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구름도 떠가고 석양이 질 때쯤
날아가는 저 새처럼 나도 훨훨 날고 싶다

사랑하는 당신과 내 인생 이 길을 함께 걷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인생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네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가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

아~ 힘들면 언제
나무 그늘 아래서
술 한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아~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구름도 떠가고 석양이 질 때쯤
날아가는 저 새처럼
나도 훨훨 날고 싶다

사랑하는 당신과 내 인생 이 길을
함께 걷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